

전북-中 도시 교류 확대 상생 발전 방안 모색

송지용 도의회 의장, 장청강 中 주광주 총영사와 환담 코로나19 극복, 이후 교류·협력 심화되는데 협조키로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과 장청강 중국 주광주 총영사가 8일 도의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극복과 전북도의회와 중국 도시의 교류 확대 및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송 의장은 이 자리에서 “광주총영사관에서 올해 초 전북도에 방역마스크를 보내준데 이어 오늘 수해복구 성금까지 기탁해줘 도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19로 교류가 중단됐지만 어려움을 나누며 더욱더 강한 연대감을 느끼고 있다”며 “장

청강 총영사께서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만큼 임기동안 전북도와 도의회를 자주 찾아 코로나를 잘 극복해, 이후 양 지역이 더욱 상생 발전하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청강 총영사도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가 연초 중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을 때 위로서함과 방역마스크 등을 보내줘 큰 힘이 됐다”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전북도와 의회에 협력해나가는 한편 전북도의회와 중국내 여러 도시들의 교류·협력이 심화·확대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과 최영일·황영석 부의장, 김대오 운영위원장은 8일 도의회 외빈접견실에서 장청강 신임 주광주 총영사와 저우지화 부총영사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간담회에 모인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사 국시 거부 구제책 곤란 성인이므로 스스로 책임져야”

민주 김성주 의원 “공공의대 설립, 10년 걸쳐 준비
원점 재논의는 철회 아닌 의사협회장의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8일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 거부와 관련해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더 이상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보건복지부가 시험의 재접수 기간을 이를 연장해줬고 시험 기간도 충분히 연장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합의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의대생들도 이제 성인이므로 정부 정책에 대해 다양한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면서도 “그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응시 취소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며 “의협이나 전공의 또는 의대 교수님들이 나서서 학

생들 설득을 해야 한다. 그런 설득을 소홀히 한 것이지 기간이 짧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에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10여 년에 걸쳐 오랫동안 준비·논의되고 결정된 정책”이라며 “이미 10년간 추진됐고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결정한 정책을 철회하라, 무효화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이 합의를 내용 중 ‘원점 재논의가 철회와 같은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그건 의협 회장의 주장”이라며 “정책이 발표됐고 법을 통해 제출했다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다.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된 의견을 내서 서로 간에 합의하면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중요한 건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하느냐”라면서 “공공의료 강화라는 큰 틀에서 필수 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지역에 부족한 의사를 어떻게 잘 유지할지가 이번에 발표한 정책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행사위, 새만금 잼버리 부지 현장 방문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8일 부안군에 위치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 예정지를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활발한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정자치위원들은 세계잼버리 준비상황과 부지매립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및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 현장과 직소천 과정 활동장 조성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잼버리 대회장 내에 건립하는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면서, 새만금 잼버리 개최 후에 리더센터 활용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171여개국에서 5만명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대규모 행사인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며 “기반시설 조성 및 프리잼버리 준비 등 세계잼버리 총사업비 변경과 관련한 국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교육청 추경안 원안 가결

도의회 교육위, 3조5608억원 '만장일치'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2020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고, 삭감 없이 3조 5,608억원이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앞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대비 3조5,647억원 대비 1,039억원이 감액된 3조5,608억원 규모다.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급한 현안 사업 등을 담고 있다.

김희수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지만,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다른 접근방법을 통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과 같이 코로나19와 같은 특수상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경우 전례없던 상황이기엔 명확한 매뉴얼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12개 직속기관과 14개 교육지원청에게 진행여부가 불투명한 사업 예산의 판단여부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현 상황을 보완 할 수 있는 도교육청의 행보를 촉구했다.

한편, 추경안은 9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된다. /유호상 기자

보이스피싱 범정부 대응기구 신설

민주 한병도 의원, 통신금융
사기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은 8일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며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 추산 피해액은 2016년 1,468억원에서 2017년 2,470억원,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3,9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범죄 수단이 발전하고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금처럼 금융당국이 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모두 담당하는 것은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범인 검거와 악성 어플리케이션 접속 차단 등의 업무도 각각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한병도 의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 산하에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가 출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보다 효율적인 보이스피싱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해구제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현행 500만원 또는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해 금융사들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유호상 기자

질병관리청 12일 출범

초대 청장에 정은경 일본 본부장
복지부, 보건 분야 차관 신설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질병청)이 오는 12일 '5국 3관 41과' 체제로 공식 출범한다. 2004년 질병관리본부(일본) 신설 후 16년 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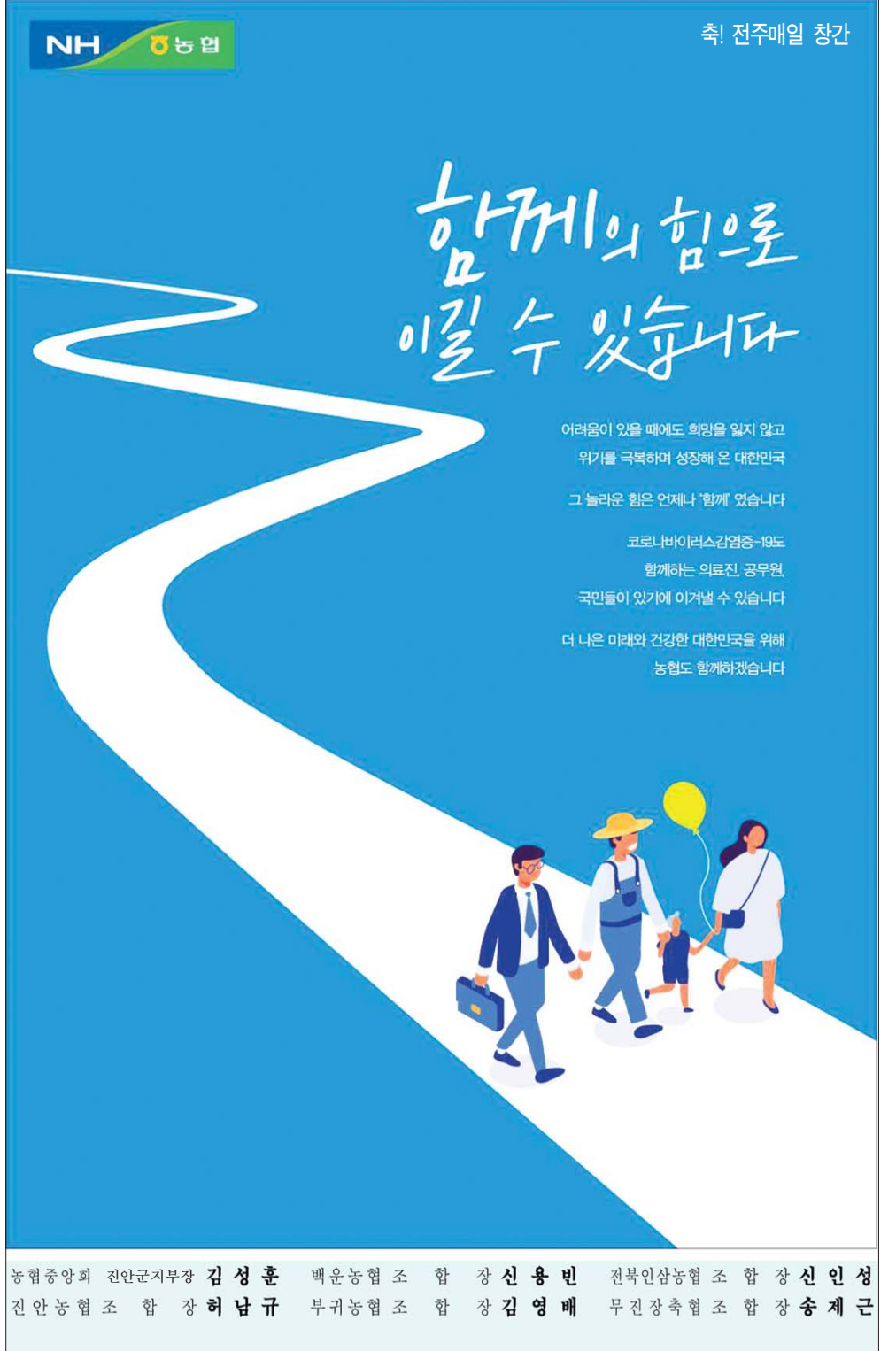
인력은 384명 순수 증원돼 일본 때보다 몸집이 커졌다.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을 산 감염병 연구기관은 모두 질병청 소속 기관으로 남는다.

초대청장으로는 정은경(55) 일본 본부장이 내정됐다. 정 본부장이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인 진두지휘하며 국민에게 두터운 신뢰를 얻은 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수장을 바꾸는 게 적절치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지 차관을 두게 된다. 증원 폭은 1관 3과 4명으로 크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12일 시행된다. /뉴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축! 전주매일 창간

NH 5농협

함께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해 온 대한민국

그 놀라운 힘은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도
함께하는 의료진, 공무원,
국민들이 있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농협도 함께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전라군지부장 김성훈 백운농협 조합장 신용빈 전북인삼농협 조합장 신인성
진안농협 조합장 허남규 부귀농협 조합장 김영배 무진장축협 조합장 송계근